

창간
 1981년 9월 14일

연세의료원소식

제898호
 2022년 6월 6일

YONSEI UNIVERSITY HEALTH SYSTEM NEWS

발행인 윤동섭 편집인 구성옥 T 02.2228.1074~5 F 02.2227.7783 severance@yuhs.ac

3년 만에 재상봉 행사 의·치대 25주년, 간호대 15·25·50주년 동창 한자리에

COVID-19로 인해 멈췄던 재상봉 행사가 3년 만에 재개됐다. 그리운 옛 얼굴들이 한자리에 모이는 재상봉 행사장에서 동창들은 그간의 이야기를 나누며 함께하지 못했던 세월을 돌아봤다.

의과대학

의과대학 재상봉 행사는 14일 의대 윤인배 홀에서 열렸다. 베레모를 쓴 25주년 동창 42명은 오랜만에 만난 동기들과 반가운 인사를 나눴다.

행사는 임종백 교무부학장의 사회로 김동환 교목실장의 기도, 유대현 학장의 인사 말씀, 윤동섭 의료원장과 한승경 총동창회장의 환영사 순으로 진행됐다. 인사 말씀과 환영사에는 다시 모인 동창들을 향한 인사와 함께 의대 신축 등 의대와 의료원의 주요 사업과 전망 등이 함께 담겼다.

행사는 재상봉 동창 소개로 본격 막을 열었다. 김철 동창이 소개를 맡았고, 동창들은 제각기 살아온 삶에 대해 간략하게 나눴다. 현업은 대학병원 교수, 개원의, 제약회사 직원, 일반 회사원 등으로 다양했지만, 이야기를 나누는 동창들은 어느새 모두 발달했던 의대생으로 돌아가 있었다. 이어 동창들은 재학 당시 함께 모여 소풍가고 봉사하며 찍었던 사진들을 보면서 추억을 되새기는 시간을 가졌다.

재상봉 동창들은 모교의 발전을 위해 의과대학 발전기부금을 전하며 모교에 대한 여전한 사랑을 드러냈다. 김철 동창이 대표로 졸업 25주년 동창들의 기부금 2억 원을 전했다.

기부금을 전한 김철 동창이 답사를 맡아 모교 발전에 대한 놀라움과 감사함, 앞으로의 기대감을 표했다. 이후 연세암병원, 세브란스병원, 중입자치료센터 등을 방문해 오랜 시간 발전을 거



데해 온 병원을 돌아보는 시간도 가졌다.

치과대학

치과대학은 14일 치대 5층 서빙인홀에서 졸업 25주년 동창 재상봉 행사를 진행했다. 본격적인 행사 전 다과를 나누며 인사와 환담을 나누고 치대와 치대병원 홍보 영상을 시청했다.

행사는 김백일 교무부학장의 사회로 김동환 교목실장의 기도와 함께 시작됐다. 김의성 학장, 김선용 동문회장이 환영사로 동창들에게 인사를 전하며 그간 치대가 이어온 발전상을 전했다.

박만수 동문대표가 재상봉 동문들을 소개하고, 답사를 맡아 모교에 담긴 추억과 고마움

을 전했다.

답사 후에는 김의성 학장과 김선용 동문회장이 기념품을 전했다. 이어 박만수 동문대표가 25주년 동창의 치대 및 치대병원 발전기부금 5,000만 원과 치대동문회발전기금 500만 원을 전하며 화답했다.

행사 후에는 동문들이 함께 치대와 병원, 치의학박물관을 돌아보며 변화한 학교와 병원의 모습을 살피는 시간을 가졌다.

간호대학

간호대학은 지난달 13일 저녁 더 플라자호텔 그랜드볼룸에서 재상봉 동문 200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2년도 재상봉동문 환영의 밤' 행사를 열었다. 올해 재상봉 행사에는 지난 2년간 COVID-19로 인해 재상봉 행사에 참여하지 못했던 15, 25, 50주년 동창들도 함께 참여해 더욱 풍성한 행사가 진행됐다.

1부 행사에서는 오의금 학장과 한미란 동창회장이 환영사와 축하사에 이어 동창들을 위한 기념품을 전했다.

동창들은 차례로 학교를 위한 기금을 전하며 학교에 대한 애정을 전했다.

2021년과 2022년에 25주년 재상봉을 맞은 송현숙, 김명순 대표는 3000만원과 2500만원을, 15주년 대표 이하나, 김정현 대표는 780만원과 760만원을 전달했다. 2부 만찬에서는 간호대학 홍보 영상을 시청하며 그간 뜻깊은 이야기를 마음껏 나눴다. 이어진 3부에서는 연세대 성악과 남성중창단의 공연에 이어 50주년, 25주년, 15주년 재상봉 동창 대표들이 프리젠테이션을 통해 동창들을 선후배들에게 소개했다. 동창들은 간호대학 재학 시절 사진을 함께 보며 추억을 회상하고 사회로 진출한 현재 동창들의 활동을 소개하며 반가운 동창들의 소식을 전하는 시간을 가졌다.

제27회 연세의학대상에 장양수 명예교수(학술), 송시영 교수(봉사)

연세사회봉사상 대상 소아암 NGO 한빛 · 창업대상 형우진 교수



장 양 수



송 시 영



유 철 주



형 우 진

의대 장양수 명예교수와 송시영 교수(내과학)가 14일 백주년기념관 콘서트홀에서 열린 연세대 창립 137주년 기념식에서 연세의학대상 학술부문, 봉사부문을 각각 수상했다.

연세의학대상은 학문 성과와 사회봉사를 통해 연세대 의과대학의 명예와 위상을 드높인 동문, 전·현직 교원 등을 대상으로 시상한다. 장양수 명예교수는 관상동맥질환에서 가장

어려운 병으로 알려진 만성폐쇄성병변의 시술법을 정립하고 약물 코팅 스텐트 삽입 후 항혈소판제 사용에 관한 국제적 진료 지침 수립에 이바지하는 등 심장혈관 시술 치료를 세계적 수준으로 발전시킨 공로를 인정받았다.

송시영 교수는 환자에게 진정으로 혜택을 주는 결과물만이 보건의료 연구의 최종 목표라고 전파해오며 데이터, 의료기기, 신약개발 등 국가·사회 연구제도 속에서 병원 역할의 강화와 융합 연구산업화 생태계 조성, 인재 양성을 위해 헌신해왔다.

연세사회봉사상 대상은 소아암 NGO 한빛이

받았다. 한빛은 세브란스병원의 의료진·대학 교수·소아암 부모 등이 모여 설립한 비영리단체로 소아암·백혈병 환아와 가족에게 경제적·정신적·물질적 지원과 후원을 해 환아와 가족이 치료에 전념하고 진정한 완치를 이룰 수 있도록 기여하고 있다. 의대 유철주 교수(소아과학)가 한빛 대표로 수상했다.

(쥬휴툼 대표인 의대 형우진 교수(외과학)는 창업대상(교원 부문)을 받았다. 국내 최초 수술 인공지능 플랫폼 기업 휴툼은 1천억 원 이상의 가치를 자랑하며 260억 이상의 민간 투자를 유치해 교원창업의 성공 모델로 자리잡았다.

세브란스병원, '2022년 스마트병원 선도모델 개발 지원 사업' 선정

사업 주관기관으로 산모 맞춤형 돌봄 플랫폼 개발 예정

세브란스병원이 20일 보건복지부가 운영하는 '2022년 스마트병원 선도모델 개발 지원 사업'에서 주관 기관으로 선정됐다.

사업은 정보통신기술(ICT)을 의료에 활용해 환자 안전을 강화하고 의료 질을 높일 수 있는 선도 모델을 개발·검증한다.

정부는 2020년부터 2025년까지 매년 3개 분야를 선정해 지원해오고 있다.

올해는 환자 눈높이에 맞춘 이해·소통을 하는 병원 환경을 조성하는 취지의 '환자 중심 소통' 3개 분야를 공모했다.

총 15개 컨소시엄이 지원했고 사업 목표·전략, 세부계획, 확산 가능

성 등을 평가받아 4개 컨소시엄이 최종 선정됐다.

세브란스병원은 '환자·보호자 교육' 주관 기관으로서 뽐냈다. 환자·보호자 교육 분야 목표는 입원, 외래, 응급 등 환자가 병원에 내원한 경로와 함께 질환에 따른 맞춤형 교육이 가능하도록 디지털 교육자료를 개

발하는 것이다.

세브란스병원은 이를 위해 산모 맞춤형 돌봄 플랫폼을 구축할 계획이다. 산모·보호자와 의료진 간 소통 시스템을 통해 임신 전주기 맞춤형 교육이 가능한 온라인 교육 시스템을 도입하고 퇴원 후에도 맞춤형 모바일 교육이 가능한 산후관리 시스템

을 개발한다.

이번 사업을 통해 특히 엠제트(MZ) 세대 산모의 특성을 고려한 자연스러운 소통이 이루어져 진료 만족도가 크게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세브란스병원은 환자보호자 교육 분야 외에도 스마트 입원환경 측면에서도 다양한 프로그램을 계획하고 있다.

우크라이나 난민 · 동해 산불 성금 2억 원 지원



의료원이 우크라이나 난민과 동해 지역 산불 피해 주민들을 위해 총 2억 2천여만 원을 지원했다.

의료원은 지난 25일 주한 우크라이나 대사관(드미트로 포노마렌코 대사)을 방문해 이중 절반인 1억 1천여만 원의 기부금을 직접 전달했다. 기부금은 난민 의료용품 등 생필

품 구매를 위해 사용될 예정이다.

이날 열린 전달식에는 윤동섭 의료원장, 김동환 교목실장, 박진용 의료선교센터 소장 등이 참석했으며, 우크라이나 출신의 연세의료원 직원 체첼니즈카 인나 씨도 동행했다. 이 자리에서 포노마렌코 대사는 귀한 성금을 기증한 연세의료원에 감사의 뜻을 전했다.

특히, 포노마렌코 대사가 "전쟁으로 인해 해외치료가 필요한 환자들이 매우 많다"고 우려를 표하자 윤

동섭 의료원장은 "우크라이나 환자들이 적절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 답했다.

이달 8일에는 희망브리지 전국재해구호협회 측에도 동해 지역 산불 구호를 위해 1억 1천여만 원의 기부금을 전달했다.

기부액 2억 2751만 원은 연세의료원 예산, 노사공익기금 각 1억 원과 2022년 부활절 헌금, 2021년 강남세브란스병원 성탄 헌금, 의료선교센터 특별구호 후원금 등으로 마련했다.

윤동섭 의료원장, 제41대 대한병원협회장 취임



윤동섭 의료원장이 제41대 대한병원협회장에 취임했다.

윤동섭 의료원장은 4월 8일 제63차 정기총회에서 추대를 통해 회장직으로 선출됐다. 임기는 2024년 4월 30일까지 2년간이다.

지난달 19일 협회 회관 14층 대회의실에서는 제41대 회장 취임식이 열렸다.

이날 행사에서 윤동섭 회장은 "의료계의 산적한 문제들을 성공적으로 해결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또 포스트 코로나를 앞두고 의료인력 수급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의대 정원 조정에도 힘을 계획이다.

윤동섭 회장은 "의사 수가 충분치 않다는 점에 대해 많은 분이 공감하시는 것 같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기존 의과대학 정원을 어느 정도 늘리는 게 가장 적절한지 합의를 도출하는 게 급선무"라면서 "의사 인력이 적정 수준이 될

때까지 교육의 충실도나 자원을 효율적으로 집행할 수 있는 방법들을 고민하겠다"고 말했다.

COVID-19 장기화로 주목받고 있는 비대면 진료 추진에 대해서는 "대면 진료를 원칙으로 관련 제도를 보완해 가며 신중하게 추진해야 한다"고 조심스럽게 말했다.

병협은 향후 미래헬스케어위원회를 신설해 비대면 진료 추진 방향을 논의할 예정이다.

윤 회장은 향후 의료전달체계 정립, 보건 의료인력 수급 불균형, 의료 양극화 해소 방안 마련,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 등에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다.

윤 회장은 "공약들을 실행하는 한편 협회가 변화를 미리 읽고 선도함으로써 국민건강을 지키고 병원들이 온전히 제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소임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빅데이터 분석센터 개소

데이터 연계 등 연구협력 강화로 새로운 부가가치 창출 기대



의료원은 지난달 23일 디지털헬스센터 1층 그린존 2분석실에 국민건강보험공단 빅데이터 분석센터를 개소했다. 빅데이터 분석센터는 의료원이 국민건

강보험과 공동으로 운영하는 신개념 건강보험 연구데이터 지원센터이며 총 28석 규모로 운영된다. 양 기관은 '의료원-국민건강보험공단 빅데이터 분석·협력센터 설치 및 공동운영에 관한 업무협약'을 체결한 후, 지난 5개월간 긴밀하게 협력해 이번 분석센터를 개소할 수 있었다. 이번 분석센터 개소로 의

료원은 임상데이터와 건강보험 빅데이터의 연계를 통한 보건 의료 데이터 연구 생태계를 선도하는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한편, 분석센터 좌석은 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 자료공유서비스 홈페이지(nhiss.nhis.or.kr)를 통해 예약할 수 있으며, 분석센터는 의료원 소속(신촌, 강남, 용인) 교직원 전용석으로 운영된다.

2022 하남정밀의료센터 심포지엄 성료 정밀의료 발전 보여주는 연구성과 공유의 장 열려

'2022 연세의료원 하남정밀의료센터 심포지엄'이 지난달 16일 에비슨의 생명연구센터 유일한홀에서 개최됐다. 온·오프라인으로 동시 진행된 이번 심포지엄에는 전영한 회장 등 기부자와 연구자 약 210여 명이 참석했다.

하남정밀의료센터는 (주)하남 전영한 회장이 정밀의료 발전을 위해 기부한 출연기금을 바탕으로 2020년 5월 설립됐다.

심포지엄은 비(非)암 분야와 암 분야 두 가지 세션으로 구성됐다.

첫 번째 세션에서는 의대 최종락 교수(진단검사의학)가 좌장을 맡고 비

암 분야 허귀유전질환에 관한 정밀의료 연구성과가 공유됐다. 하남정밀의료센터 1부소장인 의대 강훈철 교수(소아과학)의 유전성질환센터 소개를 시작으로 의대 오지영(소아과학)·이승태(진단검사의학)·박인호(병리학) 교수는 유전자 분석 체계 및 전장 유전체분석 등 최신 분석기법을 소개하는 강의를 진행했다. 이어 윤보현 교수(산부인과학)의 착상전 유전진단을 통한 유전성 질환의 예방에 대한 강의가 있었다. 김형범 교수(약리학)의 유전자 편집의 최신 동향에 대한 강의가

지 첫 번째 세션에서는 허귀유전질환의 진단 및 예방 그리고 치료를 망라한 최신 지견들이 발표됐다.

이어 두 번째 세션에서는 심호섭 교수(병리학)가 좌장을 맡아 암 분야 정밀의료를 주제로 다양한 연구성과가 발표됐다. 2부소장인 정재호 교수(외과학)의 암 정밀의료센터와 개인맞춤 치료센터가 공동으로 기획하고 진행하는 플래그십 다학제 중개연구 프로젝트인 GIDEON program에 대한 소개로 세션이 시작됐다. 이어 백순명 교수(의생명과학)가 신항원을 타겟으로 하는 암 백신 및 면역치료에 대한 연구성

과를 발표했다. 금용섭 교수(방사선종양학)의 대장직장암 항암방사선치료 반응 예측인자, 남은지 교수(산부인과학)의 유전성 암 증후군 환자 및 가족을 위한 임상 코호트 및 실험 모델 구축, 임선민 교수(내과학)의 폐암 신약 개발 및 전임상 모델을 이용한 검증, 강석구 교수(신경외과학)의 교모세포종 기원세포에 대한 최신 연구, 마지막으로 김효송 교수(내과학)의 육종 환자를 위한 정밀의료 등 난치 및 희귀암 극복을 위한 정밀의학 최신 내용 및 연구성과들이 공유됐다.

윤동섭 의료원장은 "우리나라 의학

발전과 아픈 환자의 질병치유를 위해 하남정밀의료센터 설립 토대를 마련 해주신 전영한 회장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면서 "질병으로 고통받고 있는 환자를 치료하고 미래의학 발전을 위해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전영한 (주)하남 회장은 "질병으로 힘들었던 경험으로 정밀의료센터의 필요성을 생각하게 됐다"면서 "앞으로도 연세의료원 하남정밀의료센터가 더욱 성장하고 발전해 아픔을 겪고 있는 환자들에게 직접적인 혜택을 전해주는 센터로 성장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말단악성흑색종 촉진 위험인자 최초 규명



정기양



노미령

의대 정기양(피부과학), 노미령 교수(강남 피부과) 연구팀이 발바닥에 발생하는 악성흑색종의 암 발달 분자 기전을 밝힌 연구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연구는 과학기술정보통신

부와 한국연구재단이 지원하는 중견 연구사업을 통해 진행됐으며 연구 결과는 국제학술지 'Nature Communications(IF: 14.919)'에 최근 게재됐다. 악성흑색종은 멜라닌세포의 악성화로 생기는 피부암으로, 내부 장기로 전이되면 치명률이 높다. 지난해 발표된 보건복지부 중앙암등록본부 자료에 따르면 2019년 국내 악성흑색종 환자는 638명으로 발생률이 비교적 낮

기 때문에 오히려 의사들도 이 병을 잘 몰라서 초기에 오진을 하고 병을 키워서 진행된 상태로 전문클리닉을 찾는 경우도 많다. 한국인을 비롯한 유색인종에게는 발바닥, 손바닥, 손발톱 밑과 같은 신체의 말단부에 악성흑색종이 자주 발생하며, 우리나라 발바닥 흑색종 발생 비율은 42%(세브란스병원 통계)로 가장 빈번하게 발생한다. 이에 연구팀은 한국인의 발바닥 흑색종 조직 샘플을 분석해 흑색종의 기전을 살폈고, 생

쥐 모델과 세포배양 모델 실험을 통해 체중부하에 의한 기계적 자극과 흑색종 진행의 상관관계를 분석했다. 연구 결과, 흑색종의 변연부(정상 피부와 경계부위의 암세포)에서 발생하는 핵막파열이 유전체의 불안정성과 DNA 손상을 가져온다는 사실을 밝혀냈다. 특히, 체중부하에 의해 발생하는 기계적 자극이 흑색종 핵막파열의 주요한 요인으로 작용함을 확인했다. 연구팀은 생쥐의 발바닥에 흑색종 세포를 이식하고 체중부하와 함께 강

제 챗바퀴 운동을 시켜 발바닥에 기계적 압력을 가하는 실험을 수행했다. 그 결과, 반복적, 기계적 자극은 흑색종에서 세포핵의 형태적 이상과 일시적 핵막파열을 유도했다. 핵막파열은 DNA 손상을 일으켰으며, 동시에 세포질로 유출된 DNA는 암 악성화와 연관된 내재 면역반응을 유도했다. 반면 이식된 암세포의 주변에 있는 정상 피부세포는 동일한 기계적 압력 상황에서도 핵막 불안정성과 DNA 손상을 보이지 않았다.

위산분비억제제 PPI, 심뇌혈관질환 발생 위험 높이지 않아



유준상



김진권

의대 유준상·김진권(용인 신경과) 교수가 연세대학교 상경대학 응용통계학과 강상욱 교수, 박주영 연구원과 공동 연구를 통해 위장관질환에 널리 사용되는 약제인 위산분

비억제제 '프로톤 펌프 억제제(Proton Pump Inhibitor, 이하 PPI)'가 심뇌혈관질환의 발생 위험을 높이지 않음을 밝혔다. 연구는 SCI급 국제 저널인 미국 위장관학회지 'American Journal of Gastroenterology(IF 10.864)'에 온라인 게재됐다. 위산분비억제제 PPI는 전 세계적으로 위식도 역류, 위염, 소화성 궤양 등의 위장관질환 치료에 폭넓게 사용되는 약물이다. 그러나, PPI 복용 시 심

뇌혈관질환 발생 위험이 증가한다는 연구가 여러 차례 발표된 바 있어 안전성에 대한 논쟁이 있었다. 연구팀은 2004년~2005년 국가건강검진 수검자 중 심뇌혈관질환의 과거력이 없는 30만여 명과 이중 심뇌혈관질환이 발생한 1만 952명을 대상으로 자기대조 환자군 분석과 콕스 회귀분석을 실시했다. 그 결과, 자기대조 환자군 분석에서는 심뇌혈관질환 발생률이 PPI와 H2 차단제 모두에서 증가하지 않았으나, 전통적인 생존분석법인 콕스 회귀분석에서는 두 약제

모두에서 증가함이 확인됐다. 콕스 회귀분석과 달리 자기대조 환자군 분석에서 PPI 복용에 따른 위험도 증가가 없다고 나타난 것은 해당 약제가 심뇌혈관질환의 위험도를 높이는 것이 아니라 약제를 복용하는 환자들이 가진 특성이 반영된 혼란 효과가 내포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 즉, 환자군의 특성인 고령 및 동반 질환으로 인해 심혈관질환의 위험이 높아진 것이 PPI 복용으로 위험도가 높아지는 것으로 보였을 뿐이며 실제로는 PPI에 의한 위

험도 상승이 없음을 의미한다. 특히, 심뇌혈관질환 유발 위험이 없는 것으로 알려진 H2 차단제에서도 분석 양상이 동일하게 나타난 것은 이를 뒷받침해준다. 이번 연구는 그간 논쟁이 있었던 PPI 약제의 심뇌혈관질환 유발 위험이 없음을 밝힌 것임과 더불어, 연세대 용인세브란스병원과 응용통계학과 연구진의 공동 연구로 환자 개개인의 혼란 변수를 통제해 통계적 정확도를 더욱 높은 결과라는 점에서 큰 의미를 지닌다.

소아청소년 ASD · ADHD 데이터 구축 제8차 융복합의료기술센터 심포지엄

세브란스병원이 소아청소년 자폐스펙트럼장애(ASD)와 주의력결핍과잉행동장애(ADHD) 인공지능 데이터 구축사업을 진행한다. 이번 사업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주관하고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이 추진하는 '2022년 인공지능 학습용 데이터 구축사업'으로 세브란스병원은 5월부터 12월까지 7개월간 정부출연금 34억 7000만원을 투입해 ASD와 ADHD를 진단을 위한 뇌파와 안저 이미지 데이터를 구축한다. 세브란스병원을 주축으로 은평성모병원과 강북삼성병원 등 진료기관과 AI 헬스케어 전문기업 루면랩(대표 임재현)과 AI 데이터 품질관리 전문

기업 에스에스엘(대표 박찬림)이 참여한 연세대 산학협력단 컨소시엄이 사업을 주관한다. 의대 천근아 교수(정신과학)가 총괄책임자를 맡아 사업을 주도할 계획이며 강훈철 교수(소아과학), 윤상철 교수(인문사회의학), 박유량 교수(의생명시스템정보학)가 참여한다. ASD와 ADHD는 신경발달장애로 진단을 위한 단일 바이오마커가 밝혀지지 않아 진단을 위해서는 뇌파와 안저 데이터가 필요하다. 뇌파와 안저 데이터는 침습성이 낮고 검사시간이 짧으며 저렴한 비용과 높은 재현성으로 대규모 데이터 구축이 용이하다.

의대 융복합의료기술센터가 '원격진료:최신기술과 임상경험'을 주제로 제8차 융복합의료기술센터 심포지엄을 개최했다. 심포지엄은 Zoom Webinar를 통해 진행됐으며 총 두 세션으로 구성됐다. 지난달 13일 열린 심포지엄에서는 유대현 의대학장의 인사말과 함께 임준석 교수(영상의학)가 좌장을 맡아 '원격진료 기술을 주제로 세션 1이 시작됐다. 오성진 교수(일산병원 심장내과)가 '원격진료/의료의 이해'를 주제로, 장혁재 교수(내과학)가 원격 생체 정보 모니터링 시스템 개발'에 대해, 김승환 책임연구원(한국전자통신연구원)이 '의료와 ICT 기술 연계:공학적 접근

과 가능성'을, 연미영 한국보건산업진흥원 디지털헬스케어팀장이 '원격진료 현황 및 기술개발 정책 방향'을 주제로 발표했다. 이어 박진영 교수(용인 정신과)가 좌장을 맡아 '임상적 경험 및 고려'를 주제로 세션 2가 진행됐다. 박도중 교수(서울대 위장관외과)가 원격진료 플랫폼 및 필요 충분 조건'을 주제로, 김기환 MediHere CEO가 'App based 원격진료; 한국과 미국의 경험에 대해, 나군호 네이버 헬스케어 연구소장은 '원격 로봇 수술의 현재와 미래'를, 배준의 엘케이파트너스 변호사가 '원격진료/의료; 법적 현황과 이슈'를 주제로 발표했다.

제 10회 알렌의학교육상에 허지회 교수 의대 일경장학금 장학증서 수여

의대 허지회 교수(신경과학)가 제10회 알렌의학교육상을 받았다. 시상식은 지난달 16일 의대 1층 회의실에서 진행됐다. 허지회 교수는 의대 교육부학장, 세브란스 뇌졸중센터 소장 등을 역임하며 의과대학 교육 전반과 학생 개발을 위해 힘써왔다. 이러한 노력의 결과, 의대 교과목운영 부문, 강의 부문에서 우수업적교수상을 수상하기도 했다. 허지회 교수는 "알렌의학교육상을 받게 돼 매우 영광이다"라며 "앞으로 더 열심히 하라는 의미로 생각하고 의과대학 학생들의 교육과 성장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더 노력하겠다.

알렌의학교육상은 교육이 교수의 책무 중 가장 중요한 책무이며 명예로운 활동임을 공감할 수 있도록 하고, 교육에 헌신하는 교원이 동료 교수와 학생들로부터 존경받을 수 있도록 지난 2013년 제정됐다.

의과대학은 지난달 13일 의대 1층 회의실에서 올해 선정된 의대학생 5명에게 일경장학금 장학증서를 전달했다. 전달식에는 일경장학금의 재원을 지원하는 윤일정 미래도시건설 회장과 유대현 의대학장, 박인철 학생부학장 등이 참석했다. 올해에는 윤지민·이상희(의학2), 김희연·곽지현·이준섭(의학3)이 장학금 수혜자로 선정됐다. 학생들은 장학증서를 전달받으며 윤일정 회장에게 감사 편지를 전했다. 올해로 10주년을 맞이한 일경장학금은 2012년 2학기부터 현재까지 50명에게 약 6억 2000

만원의 장학금을 지원했다. 유대현 의대학장은 "학생들이 미래에 누군가를 도울 수 있는 위치에 오르면 오늘을 기억하고 누군가를 위해 베푸는 삶을 살아가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완기 부하 심초음파’ 검사 2500례 돌파

심장혈관병원이 최근 이완기 부하 심초음파 검사 2500례를 달성했다. 2003년 국내 최초로 이완기 부하 심초음파 검사를 도입한 이래 2015년 2000례 시행 후 꾸준한 성장세를 보이며 달성한 성과다.

심장혈관병원은 지난달 11일 심장혈관병원강당에서 ‘이완기 부하 심초음파 2500례 기념식’을 가졌다.

이완기 부하 심초음파 검사는 일상 활동 중 호흡 곤란 등을 느끼는 환자를 대상으로 한다. 호흡 곤란은 여러 가지

원인으로 발생할 수 있으며, 좌심실의 이완 기능 장애가 있으면 운동 중에 발생하는 대표적인 심장질환 증상이다.

기존에는 환자가 이런 증상으로 내원해도 원인을 발견하기 어려웠다. 원인 규명을 위해서는 발현 순간에 검사를 시행해야 한다. 하지만, 일반적인 심초음파 검사는 누워서 시행해 환자의 상태가 안정돼 있기에 심장에 무리가 가지 않아 호흡 곤란 등 증상을 유도할 수 없기 때문이다.

하중원 세브란스병원장은 이러한

어려움을 해결하고자 1999년 미국 메이요 클리닉 연구 당시 이완기 부하 심초음파 검사를 개발했다. 누운 채로 호흡 곤란 증상이 나타나도록 운동 효과를 낼 수 있는 검사 장치를 고안해, 환자가 자전거 페달이 달린 검사 장치에 누워 페달을 밟는 동안 심초음파를 촬영한다. 검사를 통해 인위적으로 심장에 운동 효과를 주면서 심장판막 기능 변화 양상과 심장 내부 압력의 상승 정도 등 심장 기능 변화를 확인할 수 있다.



특히 고령화 시대에 따라 심장 노화 등 심장질환이 다양해져, 이완기 심장기능 장애 증상을 유발해 평가하는 검사는 더 중요해지고 있다.

심장혈관병원은 이완기 부하 심초음파 검사에서 세계적으로 두각을 드러내고 있다. 국제 심포지엄을 개최해

세계 석학들에게 그 노하우를 전수했을 뿐만 아니라, 관련 연구를 국내에서 가장 많이 시행해 국제 학술지에 발표했다. 그 결과 미국·유럽 심초음파학회는 이완기 부하 심초음파 검사를 심장질환 진료지침에 포함했다. 국내 연구자가 개발한 검사법으로는 처음이다.

의료산업 최고위자과정 3기 수료식



의대 의료기기산업학과가 지난달 12일 ‘2022년 의료산업 최고위자 3기 과정’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했다.

지난 1월 20일 개강한 의료산업 최고위자 3기 과정은 15주간 교육 프로그램이 진행됐으며, 총 23명 전원이 교육과정을 수료했다.

의료산업 최고위자과정은 의료산업 분야 최고 경영자의 전문지식 배양을 위해 마련된 교육과정이다.

교육 커리큘럼은 포스트 팬데믹 비즈니스 전략, 헬스케어의 진화 AI와 메타버스, 의료기기 규제와 기업의 발전 등 의료산업 전반을 살피고, 수강 후

주요 현안에 대한 자유로운 토론을 진행하는 등 의료산업 전문가를 육성하는 데 초점을 두었다. 수강생들은 연세대 총장 명의의 수료증과 함께 동문회 준회원 자격을 부여받는다.

이번 3기 교육과정에는 운동섭연세의료원장, 송영구 강남세브란스병원장, 한광협 한국보건 의료연구원장, 권순만 보건산업진흥원장,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오은영 박사, 민원기 외교부 과학기술협력대사 등이 강의를 진행했으며, 폭넓은 교육 스펙트럼을 제시해 눈길을 끌었다.

간이식 1500례 달성



세브란스병원이 간이식 수술 1500례를 달성했다.

1500례 간이식의 주인공은 강원도에서 농업에 종사하는 A씨(61세)다. 2015년 지역 병원에서 간경변 진단을 받았고 지난해 11월에는 간암 의심 소견을 듣게 됐다. 간암 치료를 위해 간이식을 가능한 빨리 준비할 것을 권유받았다.

도가 혈액형 부적합 간이식이다. 병기가 많이 진행해 이식이 불가하다고 판정받은 간암 환자들에서도 병기를 낮춘 후 성공적인 간이식을 진행하고 있다. 최근에는 폐에 전이가 있었던 간암 환자에게 간이식을 성공해 10년 가까이 간암의 재발 없이 생존하고 있는 결과를 보고하기도 했다.

환자는 세브란스병원을 찾았고 가족과 함께 주동진 교수(외과학)에게 간이식에 관한 상세한 설명을 들은 후 부인이 선택 의사를 밝혀 간이식을 빨리 받을 수 있었다.

A씨는 수술 20일 만에 안정적으로 회복해 퇴원했다.

간이식은 간암, 간경화 등으로 간이 제대로 기능하지 못하는 환자를 대상으로 한다. 1986년 처음 간이식을 시작한 세브란스병원은 지난 25년 간 여러 어려움을 극복하며 수술술기를 발전시키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

불가능했던 혈액형 부적합 간이식을 2012년 성공했고 현재는 20% 정

도가 혈액형 부적합 간이식이다. 병기가 많이 진행해 이식이 불가하다고 판정받은 간암 환자들에서도 병기를 낮춘 후 성공적인 간이식을 진행하고 있다. 최근에는 폐에 전이가 있었던 간암 환자에게 간이식을 성공해 10년 가까이 간암의 재발 없이 생존하고 있는 결과를 보고하기도 했다.

다장기 이식도 고위험 수술에 속한다. 뇌사자 폐와 생체 기증자의 간을 동시에 이식하는 수술을 최초로 선보인 곳이 세브란스병원이다.

간이식팀은 이러한 고위험군 치료에 앞장서는 가운데 우수한 치료 성적을 자랑하고 있다. 생체 간이식 생존율은 90.2%(1년), 80.8%(5년)이다.

세브란스병원 간이식팀은 기증자, 수혜자 모두를 위한 술기 개발에 힘쓰고 있다. 기증자의 흉터를 최소화하고 회복을 빠르게 하기 위한 노력으로 2016년 로봇 기증자 간 절제술을 국내 최초로 시행한 바 있으며 현재도 활발히 로봇수술과 복강경수술을 간 기증자에 적용 중이다.

강남-엠비트로 스마트 헬스케어 개발 MOU

강남세브란스병원이 지난달 17일 ㈜엠비트로와 4차 산업혁명 핵심 과제인 의료혁신 연구개발과 스마트 헬스케어 분야 등 상호 연구역량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이날 협약식에는 송영구 병원장, 박형전 연구부원장, 장원석 의료기기사용적합성연구센터 소장, 이영우 대표 등 양 기관 핵심 관계자들이

이 참석했다.

협약 체결에 따라 양 기관은 ▲상호 기술정보 교류 ▲교육 프로그램 협력 ▲임상 및 비임상 개발 관련 협력 ▲실무 연구회의체 구성·운영 등을 공동 추진하기로 했다.

송영구 병원장은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당뇨 및 건강관리가 필요한 환자를 위한 안전하고 정확한 스마트 헬스케어 개발의 초석을 마



련할 수 있을 것”이라며 “양 기관의 의료산업의 기술력 및 혁신 역량 증진에 이바지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치대병원 의료기관 평가인증 1차 회의 치대병원-두다 MOU 체결

치과대학병원이 지난달 4일 치과대학병원 7층 강당에서 ‘치과대학병원 의료기관 평가인증 위원회 1차 회의’를 개최했다.

치과대학병원에서는 올해 10월 26일에서 28일로 예정된 의료기관 3주기 평가인증 준비 및 수검을 위해 기존의 ‘평가인증 TPT’를 치과대학병원의 공식 제위원회로 재편해 체계적으로 운영하기로 결정했다.

심준성 치과대학병원장의 개회사로 시작된 이날 회의는 차정열 기획관리실장의 사회 하에 김신영 진료혁신파트장의 3주기 평가인증 준비 일정 및 조직 구성, 변경된 기준에 대한



소개의 순서로 진행됐다.

본 위원회는 인증기준과 절차에 의거해 원내 모든 진료 환경 뿐만 아니라 직원과 환자의 안전보장, 의료서비스의 질적 향상과 감염관리를 통해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활동을 진행할 계획이다.

치과대학병원과 (주)두다(DUDA, 대표이사 이재천)가 지난달 13일 상호 협력을 위한 MOU를 체결했다.

두 기관은 MOU 체결을 통해 치아유래줄기세포의 보관과 활용 등에 관한 연구개발을 위한 상호 협력 관계의 기반을 구축하고, 아직은 생소할 수 있는 치아줄기세포 관련 분야에서 학계와 임상, 그리고 산업을 아우르는 클러스터를 조직하고 확장해나갈 계획이다.

한편 (주)두다는 치아줄기세포은행 활성화를 위해 2019년 설립된 회사이며, 전신은



CDC 유치줄기세포은행으로서 2008년부터 유치유래줄기세포와 그 보관에 대한 연구를 국내 유수의 치과대학 연구실과 공동으로 진행해왔다.

의료기기 국제 표준화 본격 착수

의료원이 독일의 글로벌 인증기관 티유브이슈드(TÜV SÜD)에게 지난달 18일부터 6일간 국제 의료기기 임상시험 실험기관 인증(ISO 14155:2020-인체대상 의료기기 임상시험에 대한 국제표준 Good Clinical Practice)심사를 받았다.



오프닝 미팅에는 구성욱 혁신의료기기 실증지원센터장, 안중배 임상시험센터 소장, 최영식 교수(산부인과학)와 티유브이슈드 심사원 모니카 모나리자(Monica Monalisa), 호노라타 돈터마이어(Honorata Donnermair)가 참석했다.

심사는 2단계로 진행됐다. 1단계 심사는 앞서 3월에 진행됐으며, 사흘간 MS teams를 통해 국제 의료기기 임상시험 표준운영지침 등을 확인하는 시간이었다. 지난달 18일부터 진행된 2단계 심사는 티유브이슈드 독일 본사 심사원들이 세브란스병원과 강남세브란스병원을

각각 4일과 2일 직접 방문해, 1단계 심사에서 나온 보완사항을 점검하고, 인증 진료과 투어를 통해 평가를 진행했다.

연세의료원이 ISO14155 인증을 획득하면 국내 업체가 생산한 의료기기에 대해 국제표준에 따라 임상시험을 실시할 자격이 주어지고, 시험을 통과한 국산 의료기기 생산 업체는 해외 시장에 진출할 수 있게 된다. 지난 2021년 5월부터 유럽 의료기기 규정이 강화돼, 유럽 연합 시장에 의료기기를 출시하기 위해서는 ISO14155 규격에 따른 임상시험 데이터가 필요하다. 또한, 미국, 캐나다, 호주, 일본 등에서도 해당 데이터를 인정하고 있다.

인튜이티브와 파트너십 미팅

로봇수술 등 디지털 의료 분야 협력 강화

세브란스병원이 지난달 19일 세브란스병원장 회의실에서 수술 로봇 다빈치 제조사 인튜이티브(Intuitive)와 디지털 의료 분야 협력 강화를 위한 파트너십 미팅을 진행했다.



이날 행사에는 하종원 세브란스병원장, 김상운 연세암병원 부원장, 민병소 세브란스병원 로봇내시경수술센터 소장과 연구협력 교수진들, 인튜이티브 아시아 지역 총괄 책임자이자 수석 부사장인 글렌 버보소(Glenn Vavoso), 아시아 지역 마케팅 총괄 부사장 달라 휴튼(Darla Hutton) 등이 참석했다.

하종원 병원장의 환영사를 시작으로 글렌 버보소 수석 부사장은 미래 의료 분야에서 세브란스병원과 인튜이티브가 협력한 성과를, 달라 휴튼 부사장은 인튜이티브가 보유한 디지털 솔루션을 소개하는 발표를 각각 진행했다.

또 인튜이티브코리아는 최근 로봇수술에서 이룬 기술 발전 현황과 단일공(Single Port, SP) 로봇수술 에피센터(Epicenter) 운영 계획을 발표했다.

하종원 세브란스병원장은 “로봇수술은 세브란스병원이 글로벌 선도를 달리고 있는 분야 중 하나”라며 “의료 분야에서 디지털이 화두인 만큼 환자 치료를 위해 병원에 디지털 저변을 넓혀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세브란스병원은 현재 로봇수술을 3만 3천례 이상 시행하며 세계에서 가장 많은 수술례를 기록하고 있다.

2022년도 모범직원 시상식

의료원은 지난달 18일 은명대강당에서 2022년도 모범직원 시상식을 가졌다.

이날 세브란스병원 이비인후과 박성자 직원 등 31명과 강남세브란스병원 감염관리팀 등 4개 부서, ㈜에스텍 시스템 등 4곳의 협력 업체가 의료원 장상을 받았다.

의과대학 사무팀 허재령 직원 등 78명과 어린이병원 간호팀 외래파트 등 8개 부서는 단위 기관장상을 받았다.

의료원장상
박성자(세브란스병원 이비인후과), 이정연(행정교육팀), 박혜정(입원간호2팀), 이선영(간호지원팀), 이미화(입원간호3팀), 정혜선(외래간호팀), 박미경(보험심사팀), 채정현(영상의학2팀), 류미경(입원간호2팀), 김건희(신경외과), 정영락(이비인후과), 권경춘(강남세브란스병원 입원간호2팀), 김은숙(수술간호팀), 이교란(입원간호1팀), 임상영(입원간호1팀), 김진영(외래·응급실간호팀), 이해원(소아청소년과), 주현숙(수술간호팀), 박성필(용인세브란스병원 서비스혁신팀), 고도희(행정교육팀), 김진수(영상의학팀), 전병희(연세암병원 외래간호팀), 하정수(원무팀), 이종걸(재활병원 경영지원팀), 한희진(심장혈관병원 간호팀), 엄선호(경영지원팀), 이효상(어린이병원 세브)영상의학1팀), 손정민(간호팀), 송승철(치과대학병원 교정과), 고윤이(의과대학 임상실기교육센터), 정호선(대의협력처 홍보팀)

<협력업체>
(주)장풍, CJ 프레시웨이, (주)에이알, (주)에스텍시스템

기관장상
김종숙(세브란스병원 외래원무팀), 강민희(V팀), 최이슬(입원간호1팀), 최민순(입원간호1팀), 김정은(입원간호1팀), 송승희(입원간호2팀), 조수진(수술간호팀), 강서진(수술간호팀), 강구정(중환자간호팀), 유영남(중환자간호팀), 최재훈(응급간호팀), 이정인(감염내과), 최진진(핵의학팀(신촌)), 김은유(호흡기내과), 우민영(헬스체크업의원검진팀), 김선희(진단검사의학팀), 정다희(진단검사의학팀), 조윤수(영양팀), 이원진(영상의학1팀), 황경숙(입원간호1팀), 권순주(신경과), 이재경(산부인과), 신금지(소아청소년과), 김신태(정신건강의학과), 윤종진(영상의학과), 이수진(외래원무팀), 정태묵(V팀), 강성열(입원간호3팀), 이다은(외래간호팀), 이찬란(강남세브란스병원 입원간호2팀), 강미정(입원간호2팀), 이향숙(입원간호1팀), 임안나(심장내과), 도은혜(입원간호1팀), 하광천(입원간호1팀), 윤순웅(재활의학팀), 유준상(구내물류팀), 오현정(입원간호2팀), 이경주(수술간호팀), 김택준(핵의학팀), 문민음(가정의학과), 정현영(마취통증의학과), 박애자(입원간호1팀), 박유성(재활의학팀), 이혜정(용인세브란스병원 재무회계팀), 장정임(특수간호팀), 김미수(외래응급간호팀), 곽수희(외래응급간호팀), 황미경(특수간호팀), 송은주(행정교육팀), 정민(진단검사의학팀), 양승호(가정의학과), 조시내(특수간호팀), 박현자(연세암병원 입원간호1팀), 손병희(외래간호팀), 김안나(입원간호2팀), 위주현(특수간호팀), 김세영(방사선종양학팀), 오진순(입원간호1팀), 정미영(외래간호팀), 민혁기(재활병원 재활1팀), 이

<협력업체>
(주)장풍, CJ 프레시웨이, (주)에이알, (주)에스텍시스템

기관장상
김종숙(세브란스병원 외래원무팀), 강민희(V팀), 최이슬(입원간호1팀), 최민순(입원간호1팀), 김정은(입원간호1팀), 송승희(입원간호2팀), 조수진(수술간호팀), 강서진(수술간호팀), 강구정(중환자간호팀), 유영남(중환자간호팀), 최재훈(응급간호팀), 이정인(감염내과), 최진진(핵의학팀(신촌)), 김은유(호흡기내과), 우민영(헬스체크업의원검진팀), 김선희(진단검사의학팀), 정다희(진단검사의학팀), 조윤수(영양팀), 이원진(영상의학1팀), 황경숙(입원간호1팀), 권순주(신경과), 이재경(산부인과), 신금지(소아청소년과), 김신태(정신건강의학과), 윤종진(영상의학과), 이수진(외래원무팀), 정태묵(V팀), 강성열(입원간호3팀), 이다은(외래간호팀), 이찬란(강남세브란스병원 입원간호2팀), 강미정(입원간호2팀), 이향숙(입원간호1팀), 임안나(심장내과), 도은혜(입원간호1팀), 하광천(입원간호1팀), 윤순웅(재활의학팀), 유준상(구내물류팀), 오현정(입원간호2팀), 이경주(수술간호팀), 김택준(핵의학팀), 문민음(가정의학과), 정현영(마취통증의학과), 박애자(입원간호1팀), 박유성(재활의학팀), 이혜정(용인세브란스병원 재무회계팀), 장정임(특수간호팀), 김미수(외래응급간호팀), 곽수희(외래응급간호팀), 황미경(특수간호팀), 송은주(행정교육팀), 정민(진단검사의학팀), 양승호(가정의학과), 조시내(특수간호팀), 박현자(연세암병원 입원간호1팀), 손병희(외래간호팀), 김안나(입원간호2팀), 위주현(특수간호팀), 김세영(방사선종양학팀), 오진순(입원간호1팀), 정미영(외래간호팀), 민혁기(재활병원 재활1팀), 이

<단체>
세브란스병원 수술간호팀 수술5파트 장기이식팀, 진단검사의학팀 채혈파트, 강남세브란스병원 임상연구관리실, 용인세브란스병원 영상의학팀 CT·MRI촬영파트, 연세암병원 원무팀, 심장혈관병원 간호팀 108병동파트, 어린이병원 간호팀 외래파트, 치과대학병원 영상치의학과

용승(재활1팀), 박지영(심장혈관병원 간호팀), 김인숙(간호팀), 김형민(경영지원팀), 김한주(심장내과), 강현준(간호팀), 장한빛(안과병원 진료부), 신소영(진료부), 정금선(어린이병원 간호팀), 정우리(간호팀), 서민경(어린이병원 세브)사무팀), 구용우(치과대학병원 경영지원팀), 김지원(구강내과), 허재령(의과대학 사무팀), 고다연(치과대학 치과생체재료공학교실), 황태현(기획조정실 전략기획팀), 이희정(중입자건립추진본부 기획운영팀)

<단체>
세브란스병원 수술간호팀 수술5파트 장기이식팀, 진단검사의학팀 채혈파트, 강남세브란스병원 임상연구관리실, 용인세브란스병원 영상의학팀 CT·MRI촬영파트, 연세암병원 원무팀, 심장혈관병원 간호팀 108병동파트, 어린이병원 간호팀 외래파트, 치과대학병원 영상치의학과

「게시판」



의대 인요한 교수(가정의학과)가 지난달 10일 보신각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의 임기 개시 타종 행사에 참석했다. 인요한 교수는 타종을 맡은 국민대표 20명 중 1명으로 참여했다. 지역, 세대, 직능을 비롯해 다문화, 탈북민, 귀화 국민 등 다양한 분야와 계층의 대표성을 고려해 선출된 대표들이었다.

이들은 5명씩 4개 조로 총 33회에 걸쳐 보신각 종을 쳤다. 33회 타종은

도성 8문을 열었던 '파루(罷漏)'의 전통에서 착안했다.

의대 구성욱 교수(신경외과학)가 지난달 12일 바이오 코리아 2022에서 열린 '국산 의료기기 개발 및 사용 활성화를 위한 임상 인프라 고도화 방향' 섹션을 대한의료기기중개임상학회장으로서 개최했다.

혁신 의료기기 실증지원센터의 운영 성과, 혁신 의료기기를 활용한 임상 사례 등과 관련된 다양한 의견을 모았다.

의대 전정석, 이다빈(의학3)이 4일 열린 2022 미국임상종양학회 연례 학술대회(ASCO)에서 '2-3기 대장암

환자에서 복부 CT 촬영 간격이 전체 생존기간에 미치는 영향'이라는 주제에 대해 1저자로 발표했다. 지도교수는 의대 김한상 교수(내과학)다.

의대 윤지현 교수(용인 가정의학과)가 미국 바이오테크놀로지 기업 모더나(Moderna)가 진행하는 '모더나 리서치 펠로우십' 프로그램에 선정됐다.

윤교수는 '모더나 리서치 펠로우십'을 통해 각 개인이 지닌 유전자 특성에 따른 mRNA 백신 접종의 효과와 반응을 연구하게 된다.

의대 김주흥 교수(용인 유방외과)가 세계유방암학술대회 'GBCC

2022'에서 '우수 포스터 구연상'을 수상했다. 김주흥 교수는 국내 21개 대학병원이 참여한 다기관 연구를 통해 유방암 치료의 선진적인 수술법인 로봇·내시경을 이용한 최소 침습 유방 전절제술과 기존의 절개술 사이의 합병증 발생률과 통증 발생률에 대해, 닝중으로 발생한 담도폐쇄증의 산전·산후 초음파 및 MRI 소견을 담관낭종의 소견과 구분함으로써 담도폐쇄증의 효과적인 조기 진단에 기여한 점을 인정받았다.

의대 신현주·이시은 교수(용인 영상의학과)가 5월 12일~13일 코엑스에서 열린 제53회 대한초음파의

학회 학술대회 'KSUM 2022'에서 각각 '우수연구상 부문 우수상'과 '국제저술상'을 수상했다.

신현주 교수는 총담관낭종과 유사하게 보여 조기 진단이 쉽지 않은 소아 낭성 담도폐쇄증에 대해, 닝중으로 발생한 담도폐쇄증의 산전·산후 초음파 및 MRI 소견을 담관낭종의 소견과 구분함으로써 담도폐쇄증의 효과적인 조기 진단에 기여한 점을 인정받았다.

이시은 교수는 초음파로 발견된 유방 상피내암이 유방 촬영으로 발견된 경우에 비해 덜 공격적인 특징을 보일 수 있다 전했으며, 순수 상피내암 환자 총 792명의 대규모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는 점에서 좋은 평가를 받았다.

손윤환 前 다나와 부회장 의료원 발전기부금 3억 원



손윤환 전 (주)다나와 부회장이 의료원 발전기부금 3억원을 기부했다.
손윤환 전 부회장은 “항상 환자들을 위해 의료 일선에서 최선을

다해주시는 세브란스의 모습에 큰 감동을 받았다”며 “이번 기부를 시작으로 연세의료원과 지속적으로 좋은 관계를 이어나가고 싶다”고 기부의 뜻을 전했다.
한편, 손윤환 전 부회장은 2001년 종합 가격비교사이트 (주)다나와에 합류해 올해 3월까지 부회장으로서 회사를 이끌어오다 최근 사임했다.

씨엔에스사회복지연구소 심윤식 교수 강남세브란스병원 발전기부금 1억 원

씨엔에스사회복지연구소 심윤식 교수가 최근 강남세브란스병원 발전기부금 1억원을 기부했다.



강남세브란스병원 병원장 회의실에서 열린 전달식에는 심윤식 교수, 배우자 조희숙 여사, 송영구 병원장, 이우석 진료부원장, 이영목 기획관리실장, 이정일 발전기금강남부국장 등이 참석했다.

심윤식 교수는 의료원의 혁신적인 치료에 감사함을 전하고자 새병원 건축에 힘을 보태기로 결심했다고 하며 강남세브란스병원의 성공적인 새병원 건축을 응원한다는 격려의 말을 기부금과 함께 전달했다.

더 라이트 핸드즈 의료원 사회사업후원금 총 7천만 원

(사)더 라이트 핸드즈에서 소아청소년환자 지원을 위한 후원금 7000만원을 전했다.



지난 달 6일 교수회의실에서 진행된 협약식에는 손정배 더 라이트 핸드즈 상임대표를 비롯해 구성욱 대외협력처장, 한웅규 발전기금사무국장, 박소라 세브란스병원 사회사업팀장, 이지현 강남세브란스병원 사회사업팀장, 남진정 발전기금팀장이 참석했다.

구성욱 대외협력처장은 “보내주신 후원금이 적재적소에 사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고, 작년에 이어 올해에도 연세의료원에서 환자들을 위해 좋은 일을 할 수 있도록 후원해 주시며 깊은 감사를 드린다”고 말했다.

이번 후원금은 의료원 내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하는 소아청소년 환자에게 치료비, 의료기기, 생계비 등을 후원하는 데에 쓰인다.

한편, 이번 기부를 포함하여 더 라이트 핸드즈의 누적 후원금은 1억 7000만원에 달한다.

손정배 상임대표는 “지난 해의 후원금이 도움이 필요한 환자들에게 매우 적절하게 집행된 것 같아 감사드립니다”며 “신촌, 강남, 용인 사회사업팀이 한 마음 한 뜻으로 환자분들을 위해 힘써주셔서 큰 감동을 느낄 수 있었다”고 전했다.

박주봉 미주동창, 간호대학 발전기부금 10만 달러

박주봉 미주동창(간대72년졸)이 간호대학 발전기부금으로 10만달러를 후원했다.



지난 달 10일 교수회의실에서 열린 기부금 전달식에는 박주봉 미주동창, 운동섭 의료원장, 오이금 간호대학 학장, 구성욱 대외협력처장, 한웅규 발전기금사무국장, 김상희 간호대학 교무부학장 등이 참석해 감사의 뜻을 전달하는 자리를 가졌다.

박주봉 미주동창은 “연세대학교에서 지금의 남편을 만나 1980년 도미 후, 연세대 남가주동문회 부회장, 여동문회장, 연세어학당 창단 동문회장 등으로 일하며 항상 모교를 마음에 간직하고 살아왔다”며 “연세 동산에서부터 시작하였던 젊음의 추억을 지금의 간호대학 학생들도 마음껏 누렸으면 한다”고 기부의 소회를 밝혔다.

운동섭 의료원장은 “며나면 미국에서도 항상 연세의료원을 잊지 않고 간호대학의 발전을 위해 후원해주심에 깊이 감사드립니다”며 “박주봉 선배님과 같은 분들이 계시기에 연세의료원이 앞으로도 합찬 발돋움 할 수 있을 것 같다”며 감사의 뜻을 전했다.

오이금 간호대학 학장은 “훌륭하신 선배님들께서 길을 잘 닦아주셨기에 간호대학 학생들이 자랑스러운 마음으로 학업을 이어나갈 수 있는 것 같다”며 “모교에 보내주신 사랑을 기반으로 더욱 발전하는 간호대학을 만들어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이번 기부를 통한 SFG 신화푸드그룹 김한수 회장의 기부누적총액은 1억원에 달하게 되었다.

김한수 SFG 신화푸드그룹 회장 의료원 발전기부금 1억 원

김한수 SFG 신화푸드그룹 회장이 의료원 발전을 위한 후원금 1억원을 전했다.



지난 11일 의료원장실 회의실에서 진행된 전달식에는 SFG 신화푸드그룹 최상규 총괄사장, 문정식 인사실장, 운동섭 의료원장, 구성욱 대외협력처장, 김은현 V팀 팀장, 남진정 발전기금팀장이 참석해 후원에 대한 감사함을 전했다.

연세의료원이 우리나라 최고의 병원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는 것”이라며 “앞으로 양 기관이 함께 나눔의 가치를 실현해 가길 기대한다”고 화답했다.

최상규 총괄사장은 “이렇게 좋은 일로 세브란스와 인연을 맺을 수 있게 된 것에 감사드립니다”며 “한 번의 일회성 후원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정기적으로 좋은 관계를 유지하며 기부를 통해 조금이나마 사회에 공헌할 수 있는 기업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기부의 뜻을 전했다.

한편, 이번 기부를 통한 SFG 신화푸드그룹 김한수 회장의 기부누적총액은 1억원에 달하게 되었다.

운동섭 의료원장은 “SFG 신화푸드그룹과 같은 후원자분들의 따뜻한 실천을 통해 현재

1000~3000만원 기부

의과대학

- 조인창 바이오성형외과 원장 송백 장학기부금 1000만원

세브란스병원

- 김주미 후원자 페이스클리닉 발전기부금 1000만원

암병원

- 하정애 후원자 발전기부금-중입자치료기 2000만원

- 김영분 후원자 발전기부금-중입자치료기 1000만원

심장혈관병원

- 은강감리교회 사회사업후원금 1000만원

강남세브란스병원

- 서울연합감리교회 사회사업후원금-개별환자지원 1056만원

- 조석희 광명대흥빌딩 대표이사 내분비내과 발전기부금 1000만원

- 신상철 KIS&C 회장 소화기내과 발전기부금 2000만원

바로잡습니다

897호 1면 '의과대학 새로 짓는다' 기사 중 '연희대학교와 세브란스의과대학 통합'을 '연희대학교와 세브란스의과대학 합동'으로 바로 잡습니다.

세계를 섬기고 미래를 만드는 외과와의 동행

의과대학 외과학교실은 간담췌외과, 갑상선내분비외과, 대장항문외과, 소아외과, 위장관외과, 유방외과, 이식외과, 일반외과, 외상외과 등 9개의 임상과로 운영 중에 있습니다.

환자진료, 연구, 질병의 예방이 통합된 뛰어난 프로그램을 통해 대한민국을 넘어 세계에서 외과 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중입니다.

여러분의 후원과 관심을 통해 환자의 생명을 살리는 외과의 발전과 미래를 위한 의학교육 및 연구에 동참하실 수 있습니다.

<후원계좌>

◇우리은행 002-560432-61-000(예금주: 연세의료원)

◇발전기금사무국 02-2228-1085~6

◇의과대학 외과학교실 02-2228-2100

*기타 문의사항이 있거나 기부금 영수증 발급이 필요하신 분은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후원하러가기>



동창회소식

의대총동창회 대학발전위원회 개최

지난달 13일 밀레니엄힐튼 서울호텔에서 2022년 춘계 대학발전위원회가 열렸다. 이날 모임에는 한승경 총동창회장, 주승행 감사, 윤동섭 의료원장, 배선준 교평의장, 유대현 의대학장, 정순희 원주의대학장, 송영구 강남세브란스병원장 등 28명의 동창과 의료원 보직자가 참석했다. 유대현 의대학장이 2022년 의과대학 현황 및 발전 전략 그리고 의대 신축 진행 경과를 발표했고, 이강영 의료원 기획조정실장은 의료원의 현황과 방향 그리고 핵심인재관리를 주제로 발표했다. 정강욱 총동창회 총무이사는 2022년 동창회 현황을 소개했다. 의료원의 핵심역량강화 방안으로



인재 관리를 중심으로 주제 토론이 이뤄졌다. 구체적으로 급여와 복지 개선, 알 권리 충족, 근무환경 개선 등의 분야에 대해 토론하는 시간을 가졌다. 또한 연세합동정신 구원을 위한 토론과 다짐도 이뤄졌다.

의대 총동창회 제4차 실행이사회

지난달 19일 신촌 형제갈비에서 2022년 제4차 실행이사회가 열렸다. 이날 실행이사회에는 한승경 총동창회장, 이문형 교내부회장, 이승헌 여동창회장, 이해연 재무위원장 등 총 18명의 상임이사진이 참석했다. 연세대학교 재단이사회의 의대 신축 부지 선정 소식, 의대총동창회 대학발전위원회 소식, 졸업 25주년 재상봉 행사 소식 및 광혜 장학금 기부 소식, 연세의학대상으로 장양수 동창의 학술상, 송시영 동창의 봉사상 수상 소식, 연세대 총동문회 2022년 연세인의 밤 행사에서 김동의 동창의 연세를 빛낸 동문상 수상 소식 등의 보고가 있었다. 또한 6월 6



일(월) 의대총동창회 골프대회, 6월 12일(일) 의대총동창회장배 춘계테니스대회, 8월 27일(토) 총동창회 동창의 밤 준비 현황(의대총동창회 홈페이지 <http://iloveseverance.net> 참조)에 대한 보고가 있었다.

세브란스병원, 진료협력 우수교수 시상

세브란스병원이 지난달 10일 '2022년 진료협력 우수교수'를 선정해 포상했다. 병원장실회의실에서 진행된 시상식에는 하종원 세브란스병원장 등 주요 보직자가 참석했으며, 내과계 대표 김병국 교수와 외과계 대표 박형석 교수가 대표로 수상했다. 최우수상은 ▲김병국 교수(내과학) ▲한승한 교수(안과학)가 받았다. 우수상은 ▲홍남

기 교수(내과학) ▲최윤진 교수(내과학) ▲박형석 교수(외과학) ▲전용민 교수(정형외과학)가 받았다. 진료협력 우수교수는 작년 3월 1일부터 올 2월 28일까지의 실적을 기준으로 진료협력센터를 통한 진료 의뢰 예약 건수, 진료결과 회신서 작성 건수, 외래 협진 의뢰 건수 등을 합산해 선정했다.

치과대학 후원 감사의 날



치과대학은 지난달 24일 연세대 백양로플라자 그랜드볼룸에서 '치과대학 장학금 전달식 및 후원 감사의 날' 행사를 진행했다. 이날 행사에는 손흥규 명예교수와 김선용 동문회장 등 기부자와 김의성 학장 등 치대 보직자 약 60명이 참석했다. 1부 행사에서는 최성호 전임 학장의 기도를 시작으로 김의성 학장이 환영사를, 후원자를 대표해 김선용 동문회장이 인사말을 전했다. 최윤정 학생부학장은 장학금과 기부금 현황을 발표했다. 이어서 치대 축구동아리인 연아이글스와 김선용 동문회장이 580만원과 3000만원을 장학

금으로 각각 전달했다. 또 외부장학금 기부자와 본과 1학년생을 대상으로 지급되는 한학년 장학금 기부자의 장학증서 전달식이 진행됐다. 2부 행사는 연세대 음악대학 중창단의 공연으로 시작했다. 양정강 퇴임 교수의 건배사와 함께 만찬 시간이 이어졌다. 이날 행사에서는 서우경 ㈜엠코 대표 등 총 4명의 새로운 기부자들이 약 1억 5천만 원을 약정했다. 김의성 학장은 "기부금은 액수의 크기와 상관없이 학생들에게 큰 힘이 되고 있다"며 "학생들이 학업을 이어갈 수 있도록 도움주신 후원자 모두에게 감사드립니다"고 말했다.

사랑을 실천하는 사람들 (1.1-1.31) 1천만원 미만 기부건(재직 교직원 급여공제, CMS제외)

용인세브란스병원(발전기부금, 사회사업후원금, 원목실 헌금 및 후원금)
(분당)지구촌교회 박찬홍 신중창 이세미 이준희 임자균

의과대학(발전기부금, 연구 및 연구소 기부금, 신축기부금, 장학기부금)

(재)한재공익재단 강성석 강승하 강중화 고기은 송승일 고서안 권민석 김건홍 김기수 김기용 김도담 김동진 김문아 김성희 김은경 김재원 김정한 김주섭 김주희 김준형 김진영 김진형 김찬우 김창근 김철 김하나 김형중 김효진 나비푸드 노은비 류동일 민장환 박민용 박선아 박선자 박재민 박정호 박지호 백승 백승학 서기철 서장현 손기혁 송은규 심상수 아베리아부산 안강현 안광진 안찬수 오정택 원종윤 유진희 유홍욱 윤현준 이강식 이남선 이승수 이승연 이은구 이이형 이정훈 이정은 이정준 이정표 이차영 이창연 이필휴 임성규 장경덕 장상호 장성구 정재욱 조상현 조준근 조철호 주진우 지 혁 차경빈 천근아 천선희 최경훈 최미영 최원준 최주연 한상원 한승경 한재욱 홍문기 홍사민 홍준호 황영남

의료선교센터(발전기부금, 선교 및 선교사 후원금, 의료선교후원금, 의료선교 교육기금, 특별구호 후원금, 후원회 후원금)

(재)성서침례교회 (재)대한예수교장로회 소망교회 (재)대한예수교장로회일산문정분교교회유지재단 강남동산교회 강남비전교회 강신혜 개봉교회 광주겨자씨교회 대한성결교회 은평교회 김관식 김나희 김문규 김성오 김성환 김중현 김태욱 김현영 김호택 나라엘 난곡제일교회 남서울교회 남서울은혜교회 늘푸른교회 늘푸른침례교회 대구동신교회 대덕한빛교회 동산교회 박정용 박희정 복원교회 사랑의교회 상당교회 새벽교회 샘물교회 서울교회 서울남교회 서울은혜교회 서울은혜교회 서울제일교회 선한목자교회 세계로교회 소원의향구교회 손기혁 송승근 송탄중앙침례교회 수영로세계선교회 신생교회 신용산교회 신일교회(선교부) 신전수 신촌중앙침례교회 아름다운교회 안강중앙교회 안산동산교회 연대인사팀 연동세션 연희교회 예능교회예교 예수평강교회 예일교회 예장영광교회 오룡교회 온사랑교회 와우리교회 왕성교회 용인세브란스(추수감사절헌금) 우면동교회 우원기 은평광은교회 이수정 이일학 인천성산교회 임용화 장병식 장석교회 장성구 장위제일교회 전주은누리교회 정학영 주내림교회 주사랑선교교회 주관교회 지구촌교회 천산중앙교회 천안장로교회 천정범 최덕환 최재근 최정임 추상희 충신교회평안교회평촌새중앙교회 포항총신교회 한사랑교회 한상호 한호용 행복나눔교회 해설의원 홍주의 황민규

의료원 (발전기부금)

(주)백퍼센트 김경아,이은사,이만천 김영철 김지안 민유빈 베이직처치 석호은 정재숙 정호영 조성현 홍설희

재활병원 (발전기부금, 장애인사회재활후원금, 장애인의료재활후원금)

박재우 안병욱 오백영 유춘희 임성규 장성규 진경련 천춘경

치과대학 (발전기부금, 연구 및 연구소기부금, 장학기부금)

강주현 권준호 김경남 김경석 김성영 김성목 김일영 엄수혁 이익홍 이정구 조영식 차응식 최희수 황효연

치과대학병원 (사회사업후원금)

차정열 윤승환

매주 이별하는 그대

저자 | 박효진(강남 소화기내과)



의대 박효진 교수(강남 소화기내과)가 산문집 '매주 이별하는 그대'를 최근 출간했다. 이 책은 박효진 교수가 일상에서 체험하고 느꼈던 것을 정리한 '내 마음의 행로', 맛집에서 맛있는 음식을 즐기며 남긴 후기인 '미미탐구(美味探究)', 의사 및 교수로서 만나고 부딪히는 일들을 글로 옮긴 '의변잡기(醫邊雜

記)', 여행지에서 느꼈던 감정을 정리한 '추억으로의 여행'으로 구성돼 있다. 책의 마지막 장에는 박효진 교수가 자연에 대한 감정을 옮긴 시 14편도 수록됐다.

박효진 교수는 "COVID-19 이후 2년간 지난 어느 해보다 사색을 많이 하는 창조적 휴식의 시간을 보내며 지난 2년 전에 출간한 산문집인 '여백을 위한 서정'보다 더 많은 글을 담았다"며 "올해에는 COVID-19 세계적 유행 전염병이 진정돼 3년 전 소중했던 일상으로 다시 돌아갈 수 있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가씨/330쪽/16,000원]

기고 | 김병수(김명선 탄신 100주년 기념사업회 위원장, 전 연세대 총장)

스승의 날 김명선 선생님께

연세대학교 137주년 창립기념일과 스승의 날을 앞두고 연세의료원과 연세대학교의 정신적 지주이신 김명선 선생님 묘소 방문 기록을 집필함으로써 스승을 추모하고자 한다.

김명선 선생님은 제중원-광혜원-세브란스의 학교-연세대학교로의 발전을 이룩한 세브란스 정신의 큰 지주이다. 조국의 운명이 바람앞에 촛불같았던 일제강점기와 1945년 해방이후 혼란한 정국에서 세브란스를 지켜내시고, 한국동란중에는 세브란스 의과대학 학장님으로 교수진, 간호인력을 위기에서 구출하여 무사히 거제도 피란 시키고 세브란스병원을 유지하며 피난민 진료를 주도하셨다.

인천상륙작전으로 서울수복이 되고 피난 못한 서울시민과 북한에서 남하한 피난민 진료를 문창모 원장님(1931년)과 지휘하시며 세브란스를 지켜내셨다.

1950년 성탄절 전후에 중공군 개입으로 UN군이 후퇴하여 다시 서울이 점령당하게 되는 1951년 1월 4일에는 김명선 선생님께서 주도하시고 문창모 병원장과 교수진, 간호사가 이용설 전임 교장과 선교사 맨렛선생님 도움으로 거제도로 세브란스병원을 피난시켰다.

다시 서울을 수복한 후에(1951년 4월)는 세브란스가 다른 대학보다 일찍 미군 민사처원초치장 먼스킨대령을 설득해서 파괴된 병원건물을 복구토록 하였고, 한미재단, 미국의 많은 기독교 선교재단 후원으로 파괴된 병원, 의과대학과

Avison Hall, 간호대학 건물을 복원하여 정상적인 세브란스 의과대학을 재건하시게 된다.

세계기독교봉사회 파송으로 우리나라는 결핵요양병원을 설립하여 수용하던 시절에, 1950년대 세브란스에 오시어, 미국에서 개발된 결핵치료제를 처음 도입하여 외래에 Ambulatory TB Treatment Center를 개설하신 Ernest B. Struthers 선생님의 결핵사업에 감동받아 Taylor 미8군 사령관 Robin 의무관이 김명선 선생님을 뵈고 세브란스에 한국전쟁에서 전사한 45,000명 장병을 기리는 흉곽병원을 건축하게 된다. 이때 외과교수로 헌신하신 와이즈(Weiss) 선생님 내외분의 노력이 대단하였다.

세브란스병원 부지가 협소해서 동양최대 병원인 흉곽기념병원 건축이 불가능하다하여, 김명선 선생님께서 연희대학교와 합동을 전제로 현 의료원 자리로 기념병원터를 결정하므로 두 대학이 합동하여 연세대학교가 설립되었다.

그러나 교수진은 물론 모든 세브란스 동창들의 극렬한 반대로 김명선 선생님의 고난이 현연할 수가 없었다.

원용덕(1931년졸) 헌병총사령관은 권총을 선생님께 겨누며 합동을 반대하고, 동창들은 선생님 사택에서 가구까지 파손하였다. 그 당시 신촌은 농촌지역으로, 병원이 이전하면 전국의 환자들이 치료 받을 길이 차단될 가능성도 있었다. 그 당시 연희는 세브란스에 비해 전통이나 학문 차이가 있어 손해본다는 의견이 많았다.



신촌에 세브란스병원이 개원 했으나, 1962년 개원후에도 한강대리가 제1한강교 한 개로, 오는길이 없어 환자가 감소하여 운영이 어려웠다.

박정희 대통령 집권이후 1965년 1월에 제2한강교(양화대교)가 개통되며 지하철 2호선 개통으로 전국에서 환자가 내원하게 되니, 형편이 나아졌다.

김명선 선생님은 많은 제자를 생리학교실에서 양성하셨고 교수는 물론 공공의료기관장으로 키우셨다.

1941년도 졸업동창으로 마산공동요양병원장(결핵병원)으로 오래 근무하신 류광현 선생님께서 1983년도 마산의 토지 26만평과 현금7억 원을 기증하심으로 교내 최초 김명선 기념재단이 설립되었다.

김명선 기념재단은 교내 유일한 재단으로 교

수연구사업, 학생교육지원 등을 시행한다. 강두희 전 학장님이 재단 이사장으로 기념재단을 이끌어 오셨고, 기념재단에서 매년 선생님 작고하신 4월 24일에(경기도 시흥시 산현동) 묘소참배를 하였다.

현재는 우리 모교 큰 스승이신 이경식 전 세브란스병원장님이 김명선 기념재단 이사장님으로 전통을 이어가고 있다.

세월이 지나니 금년에는 이경식 기념재단 이사장님과 필자, 그리고 생리학교실 강신우 선생님 세사람이 4월 24일 묘지를 참배하고 별초를 하고 왔다.

이제 더 세월이 지나면 큰 스승 김명선 선생님 묘소 참배객도 없겠지만, 그분의 정신은 모든 세브란스 구성원에게 계승되기를 기도하며 스승의 날 즈음해서 이 글을 올린다.

강남, 스승의날 기념 김효규 동상 헌화식

강남세브란스병원 소아청소년과는 지난달 16일 스승의날을 기념해 병원 중심광장에 위치한 김효규 동상에 꽃을 바치는 행사를 가졌다. 이날 헌화식에는 이영목 기획관리실장, 의대 이순민 교수(강남 소아청소년과) 등 소아청소년과 교원 18명이 참석했다.

고 김효규 교수(1917~1999)는 의대 소아과학교실 발전을 이끌었으며 1972년부터

10년 동안 연세대학교 의무부총장 겸 의료원장을 역임했다. 특히, 지난 1975년 영동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영동세브란스병원 설립 추진의 기틀을 마련했다. 강남세브란스병원 소아청소년과는 스승의 넋을 기리기 위해 지난 2015년부터 헌화식을 진행하고 있다.



강남, 연구TALK세미나 개최

강남세브란스병원이 지난달 18일 '연구TALK세미나'를 비대면 방식(Webex 화상회의)으로 개최했다. 연구TALK세미나는 강남 연구자들의 궁금증을 해소하고 협동연구를 활성화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연자와 사회자, 패널들이 출연하여 질의응답을 주고받는 토크쇼 형식으로 진행됐다. 의과학연구처 강남부처장 이현웅 교수(강남 소화기내과)가 사회를 맡았으며, 연자로는 약대 김성훈 교수가 '암과 섬유화증 치료를 위한 새로운 면역조절자의 개발 현황(Development of novel immune modu-

lators for cancer and fibrotic diseases)'을 주제로 발표했다. 이어 박해정 교수(강남 호흡기내과), 황성순 교수(강남 의생명과학부), 김락균 교수(강남 의생명과학부)가 패널로 참여해 연구 관련하여 자유로운 토론을 이어갔다.

강남, 교직원식당 스낵픽 코너 오픈

강남세브란스병원은 교직원식당 음수대 구역을 새롭게 리모델링해 지난달 10일 '스낵픽'이라는 새로운 코너를 오픈했다. 스낵픽은 간편하고 편리한 제품(SNACK)과 고르다(PICK)의 합성어로, 샐러드, 도시락, 샌드위치, 김밥, 씨리얼, 과일, 다양한 음료 등 총 100개



가 넘는 상품을 진열했다. 각 상품은 1~4포인트로 구성되어 있고, 이용자는 개인의 취향에 따라 4포인트를 조합해 상품을 선택할 수 있다. 편리함과 다양성, 개인이 구성을 조합한다는 재미까지 더해져 스낵픽은 오픈일 당일 아침부터 교직원들의 큰 관심을 끌었다. 1회(4포인트) 이용 금액은 중·석식과 동일하며, 이용

시간은 오전 7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브레이크타임 오후 3~4시).

김명석 총무팀장은 "스낵픽 코너를 통해 식사 선택폭이 확대됨에 따라 교직원들의 만족도가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스낵픽 코너를 통한 테이크 아웃 활성화로 교직원식당 밀집도를 일부 해소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